

# 가로수 대신 숲·정원...도심 녹화 업그레이드

## 6월까지 광주교대 담장 허물어 주민 소통공간 활용 시, 2017년까지 '유아 숲 체험원'도 10곳 조성키로

광주시가 민선 6기 들어 시민 결의로 다가서는 도심 녹화 사업을 펼쳐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기존 천편일률식 가로수 중심의 녹화 사업을 축소하고, 대학교 담장 허물기, 유아 숲, 명상 숲, 도심 정원 등 시민의 삶 속으로 자연이 녹어드는 도심 녹화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까지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담장을 허물어 커뮤니티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커뮤니티 정원 조성사업은 학교와 마을을 구분 짓던 담장을 없애고 교내 녹지공

간을 주민에게 개방,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예산은 3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광주교육대학교 담장 근처는 주민들이 버린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1일 광주교육대와 풍향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담장 허물어 커뮤니티정원 조성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대에서 담장을 허물어 공원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주민자치회는 화단관리와 청소 등을 맡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돼 도심 속 대표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어린이의 산림 교육을 위한 '유아 숲 체험원' 10곳도 조성한다. 숲 체험은 유아들이 숲 속 놀이와 생태학습을 통해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생태체험 교실이다.

시는 연말까지 5곳 조성을 목표로 ▲서구 금당산 ▲남구 풀빛근린공원 ▲북구 두암근린공원 ▲광산구 경암근린공원 ▲사직공원 등에 숲 체험원을 설치할 방침이다. 새로 조성되는 숲 체험원의 운영은 해당 자치구와 사업소가 맡게 되며 간소한 신청절차만 거치면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삭막했던 도심 곳곳 자투리땅과 공터도 미니정원이 조성되면서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매년 75곳씩 5년간 220억원을 들여 주변 생활권의 특징을 살린 도시정원 375곳 조성 공사를 진행중이다.

시는 도시정원 조성 지역으로 도심 속 자투리땅, 공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아파트와 마을 등은 주변 여건과 특색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를 걷다 보면 나무와 화초 사이에 작은 냇물이 흐르는, 도심 정원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시는 도심 정원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정원 투어' 등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다는 방침이다.

노원기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아시아문화전당 조성과 2015 광주세계U대회,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개최하는 국제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도심 녹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단순한 경관 조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경관을 통해 시민의 삶이 건강해 질 수 있는 경관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 본격화

## 시, 학생·전문가 등 시민자문단 20명 안팎 모집

광주시가 기존 관(官) 중심의 개발방식을 벗어던지고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3일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획일적인 도시정비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시민자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학생과 일반시민은 물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등 광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취된 자문단은 광주시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단위사업 발굴과 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등 도시재생 전반에 대해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신청 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www.kwangju.go.kr)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3월2일부터 16일까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에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정 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www.kwangju.go.kr)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3월2일부터 16일까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에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문단 운영과 함께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마련하고 SNS(밴드) 등을 개설, 마을마다 숨어있는 이야기 등 도시재생 자원이 될 수 있는 소재와 의견 등을 시민 누구나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형석 광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시민자문단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특히 재개발·재건축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심 재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통 장담그기 체험행사' 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형숙)가 최근 광산구 용곡동 청사 체험학습장에서 진행한 '전통 장담그기 체험행사'에서 참여 가족들이 전통 용기에 메주를 넣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옹기 안에서 숙성된 간장 빼기 체험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제공>

# 광주 애니메이션·게임 등 문화콘텐츠 '한눈에'

## 시, 문화전당역내 홍보부스 설치 오늘부터 운영

광주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광주시는 3일 "광주시가 제작 지원한 작품을 홍보하는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스튜디오 홍보부스'를 지하철 아시아문화전당역 내에 설치하고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부스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인터랙티브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개발하고,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설치했다.

시는 문화전당역 홍보부스에 이어 오는 6월까지 시청 1층을 비롯한 시청 홈페이지에도 시가 제작 지원해 상업화한

애니메이션, 영상, 게임 등 우수 콘텐츠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광주시 티투어 버스에도 인기 캐릭터를 랩핑해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한 대표 콘텐츠는 EBS 인기프로그램인 '두다다랑', '우당탕탕 아이쿠' 등 애니메이션과 게임, 만화 콘텐츠 등 50여 개에 이른다.

시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웹툰) 등 지역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및 창업을 지원하는 문화콘텐츠 전문 창업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U대회 조직위 승용·승합 운전요원 1350명 선발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승용·승합 운전요원을 모집·선발한다.

선발된 운전요원은 기아자동차(주)로부터 후원 받은 1일 평균 1000여대의 승용·승합차를 배정받아 대회수송기간(6월 26~7월17일) 동안 귀빈과 선수, 임원 등 대회 패밀리의 수송 서비스를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26세 이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연령기준)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보유자이며, 운전경력 5년 이상, 최근 3년내내 무사고 운전자이면 된다. 조직위는 각종대회 수송경험이나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자와 영어 등 외국어 기본 회화가 가능한 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1350여 명으로 1일 10시간 근무 기준 일급 9만원과 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지급될 예정이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 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조직위 홈페이지 (http://www.gwangju2015.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일반인은 조직위 1층 접수창구에서, 개인택시 운전자는 개인택시조합사무실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많은 모집인원과 운전요원 관리·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돼 대행업체 선정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제대회 실천과 시민 참여로 예산 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직위가 직접 모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와 기아자동차(주)는 대회수송 기간 20일 동안 운전차 없이 승용차량 1일 평균 773대, 승합차량 288대와 운전자를 포함한 버스 343대를 지원하는 자동차 부문 후원계약을 맺은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소촌건널목 입체화 공사 관련 보상금 지급 추진

광주시가 공익사업으로 추진중인 소촌건널목 입체화 공사와 관련해 공사 구간 손실 보상을 추진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4일부터 4월3일까지 소촌건널목 보상금 지급 결정 및 협의의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보상 대상자와 협의계약을 추진하고 손실보상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9일부터 3일 동안 소촌동 마을회관에서 시 종합건설본부의 브랜드 사업인 '오케이 보상 서비스'의 하나로 현장방문 계약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듣고 상담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6월 광주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소촌건널목 입체화 공사는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내년 5월까지 길이 253m, 폭 20m 규모로 소촌건널목을 입체화하는 사업이다.

윤철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장은 "손실보상 협의를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과 소통하는 보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산수동 남양빌라 지하상가

- 광주 동구 산수동 21-5 남양빌라
- 분양평수 150평(실97평)
- 감정가/시세-1억5천만원정도
- 노래방, 탁구장, 골프연습장, 호프, 독서실 등 적합
- 급매가 - 6200만원

**현재 경매 진행중!**

**1/3 가격으로 매매합니다.**

문의. 010-3605-5000

###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임장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 1대1 실전 사례 교육
- ▶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